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의 ‘우리 반 모임’ 실행과정 이야기

정경미(충신대학교 기독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김미경(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요약

본고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S교회 ‘우리 반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 6년간의 청소년 복음사역 실행과정을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따라 기술한 기독교실행연구이다.

‘우리 반 모임’은 교회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와 공동체의 영적 성숙의 시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2008-2011).

첫 번째 실행은 정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는 ‘잠재적인 복음 제시’의 형태로 약 1년간 진행됐다(2012. 2 - 2013. 2). 이 기간에는 ‘우리 반 모임’ 참여 아이들의 수적 증가와 관계맺기, 신뢰감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두 번째 실행은 복음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본격적인 복음 제시’의 형태로 3개월간 진행됐으며(2013. 3 - 2013. 5) 첫 번째 실행에서 세 번째 실행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음제시의 강·약 조절하기, 서두르지 않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존중하기 등의 방법을 모색하며 세 번째 실행을 준비했다.

세 번째 실행은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를 활용한 복음제시’의 형태로 3개월간 진행됐다(2013. 6 - 2013. 8). 이 기간에는 소수 아이들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참여가 이어졌다. 이는 ‘우리 반 모임’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현상이며, 모임의 목적과 방향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세 단계 실행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반 아이 수가 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 둘째, ‘우리 반 모임’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예배에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우리 반 모임’이 예배로 나아가는 통로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사이자 연구자인 나는 ‘우리 반 모임’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실행연구의 과정을 통해 교사와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전략적 접근, 깊은 통찰과 고민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청소년 복음사역은 정형화 된 프로그램에만 의지해서 진행할 수 없다는 속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의 근본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 실행연구의 기독교적 활용의 가능성과 현장 유용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복음, 기독교실행연구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교사인 내가 계획한 실행과정 성공사례가 아니다. 다만 나는 교회학교 교사로써 실행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한 것들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 고에 기록되는 모든 시작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본 고의 서두에 이러한 단서를 두는 이유는 실행 연구의 특성상 연구 주체이며 교사인 ‘나’의 사고와 행동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듯 비취 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S교회의 고등학교 2학년 교사로 섬기고 있다. S교회의 교회학교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담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는 ‘12년 책임담임교사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 명의 교사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는 2008년부터 시작 된 ‘12년책임담임교사체계’ 내 6학년 담임으로 배정이 되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는 성경적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다. 2008년 이후 약 3-4년의 시간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반 아이들의 수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아이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현재 우리 반 아이는 세 명..... 이 시점에서 나는 지나온 시간과 과정을 반성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이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우리 반 모임’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반 모임’ 실행의 배경 이야기에서부터 세 단계로 구분되는 실행과정 이야기를 서술하고 ‘우리 반 모임’ 실행과정에 담긴 의미와 열매들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 반 모임’ 실행의 배경 - 차려진 밥상(2008-2011)

‘차려진 밥상’은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반 모임’을 시작하고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와 교회학교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배우의 비유처럼, ‘우리 반 모임’의 실행들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놓은 것’이라는 말이다.

1. 기독교는 생명이야! - S교회의 특징 -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S교회이다. S교회는 입교인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로 거의 3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부 사람들이 오면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2007년 12월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에서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수의 생명이 운동하는 생활신앙’이 강조되었고 교회학교의 교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이름뿐인 교사, 의무감만 가진 교사가 아닌 영적 어머니, 아버지로 거듭나고 준비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너희들은 다음세대의 모판이야! - 우리 반 구성

내가 담임을 처음 맡은 2008년 당시 우리 반은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 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 하나, 이렇게 세 명의 6학년 남자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모판의 사전적 의미는 ‘범씨를 뿌려 모를 키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역할과 부르심이 모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기초가 되어주는 역할! 세 명의 아이들은 2009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현재는 예배팀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있다.

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 내가 교사로 ‘작동’ 하는 원리

2008년 당시 예배인도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7년의 시간 동안 (2008년~2014년)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 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과정에 가장 적절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적으로 품으며 하나님께 적절한 때와 계획을 구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예배생활은 내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새로워졌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 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소망과 동기가 생겨났다. 이 시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세 가지였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둘째, 내가 삶에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역할과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어렵פות이나마 배우는 시간이었다. 셋째, 삶과 예배를 통한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소망임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는 말씀은 교사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 나에게 큰 도전이며, 핵심이다. 말씀은 나 자신부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한다. 교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누구나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맡게 되면 뭔가 가르쳐야 한다는 열정과 의무감을 갖게 된다. 자칫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본의 아니게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 자기만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교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이고, 나도 이와 같은 실수와 절망 속에서 그 원리를 배웠다. 잘 구성된 프로그램의 겉모습은 같을 수 있으나 그 실행 프로그램의 동기의 주체와 인도하는 주체가 사람일 때의 열매와 결과, 그리고 성령님 일 때의 열매와 결과는 생명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만큼 중요하고 다르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열매를 맺는 방법과 원리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원리와 방법, 둘째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어떠한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아이들이 내 눈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

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¹⁾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좁은 길일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²⁾ 그렇다면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알고 적절하게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의 역할과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³⁾

이러한 이유로 교사인 나는 모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이전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넘쳐흘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고전 9:16)의 큰 힘과 동기가 생겨나는 일에 집중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새로운 삶과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맞보아 아는 교사(시 34:8)에게 붙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 인생의 한 대목에서 만난 교회학교의 교사로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기적절하게 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4. ‘차려진 밥상’에 대한 반성적 생각

뭔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준 교회와 우리 반 세 명의 아이들, 그리고 교사인 나의 정체성이 바로 ‘차려진 밥상’이다. 만약 우리 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여정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이 ‘차려진 밥상’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영역은 ‘우리 반 모임’을 구성하는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존 세 명의 아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들을 통한 ‘우리 반 모임’의 기반형성은 건물의 기초공사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 세워질 건물보다 많은 수고와 시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지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 각자가 교회로 세워진 이 시기는 추후에 올 다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면 처음 오는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과 조치가 필요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은 아이들 각자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새 생명의 내재(內在)와 그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때문이다. 나도 청소년기를 지냈다. 나는 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겪었고,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나, 꿈에 도전하는 일들은 늘 막연한 숙제처럼 떠안고 지내왔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런 것이려니’하며 인생에 있어 핵심적인 궁금증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행복과

1) 전 3:11 하나님의 때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 그리고 그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음을 말씀 하신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예의주시하는 교사의 통찰과 기다리는 인내의 수고가 필요하다.

2) 막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니라: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은 좁은 문(마 7:13-14)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이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메고 마음에 쉼을 얻으며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마 11:29-30).

3) 갈 6: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권고 혹은 명령이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영역이 있지만 때로는 교회학교 담임교사의 권위와 책임 안에서 나눌 수 없는 짐도 존재한다.

평안, 사람의 근원, 존재목적, 그리고 죽음 이 후에 대한 것을 접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한지 7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즉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고 나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로 지나갔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존재와 근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정의 등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James Fowler는 청소년기를 종합적-인습적(Synthetic-Conventional) 신앙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정체감(self-identity)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 보았다(최태진, 2012).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소년들이 깊고 견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김미경, 2011). 그런데 초기 우리 반의 관심이 예수님과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이 중점이다 보니,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낯설음이나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돌아보니 그 아이들은 교회의 존재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오고 싶은 생각보다, 종교적인 분위기에 맞추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거부감과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이 2008년 '어린이 여름성경통독학교'에 참여하여 교회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사인 나에게 친밀감과 안정감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개개인을 위한 관심과 기도가 부족해 우리 반 전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열정과 눈빛으로 작은 관심이 전달되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나누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그 후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는 세 명이 외에 간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여섯 명 정도 있었지만, 약 4년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와 신앙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다른 통로를 마련하여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 이전과 같이 찾아온 아이들을 도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새로 온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여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반 모임'에 대한 단계적인 실행의 첫 발을 내딛었다.

Ⅲ. 연구 방법

1. 무엇이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인가? 아니, 왜 실행연구인가?

Reason과 Bradbury(2001: 1)는 『실행연구 핸드북』의 서문에서 실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실행연구란 우리가 역사의 현시점에서 발현하고 있다고 믿는 참여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에게 가치있는 목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해가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이다.

그들은 이러한 입장에서 실행연구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실행연구는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일상사에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실행연구는 실천적인 결과를 달성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창출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행위없는 이론이 의미없는 것처럼 성찰과 이해없는 행위는 맹목적이다.

셋째, 실행연구는 전문적인 연구자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그들에 의해서 수행될 때 비로소 의미있는 연구가 되므로 참여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넷째, 실행연구는 매일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탐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실행연구에서 얻는 지식은 완결된 명사형(knowledge)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동사형(knowing)이다(이용숙 외, 2005, 재인용).

대부분의 실행연구는 계획-실행-관찰-반성의 사이클을 핵심적인 틀로 사용한다(Kemmis, S. and McTaggart, R., 2000). 실행연구는 객관성이나 이론정립보다 실행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실천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식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행연구는 자신 삶의 실천 속에서 계획과 실행에 대해 탐색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평가하는 서술을 하기 때문에 자율 순환적 · 내부 해석적 성격의 과정지향 탐구 패러다임이면서 동시에 개선적 · 비판적 성격의 결과도출 탐구 패러다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한 실행연구

위에서 살펴본 실행연구의 정의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실행연구란 우리⁵⁾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의 현시점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 세계관과 참여적 세계관⁶⁾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가치있는 목적⁷⁾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해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⁸⁾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정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독교실행연구의 성경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행과 관찰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

4) 이용숙 외 (2005). 이 책은 Reason과 Bradbury 이 외에 많은 학자들의 정의와 분류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본 연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Reason과 Bradbury의 정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5) 롬 6:4-5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하여 장사되고 새 생명가운데 행하도록 살리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6) 고전 3:9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사 43:7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말씀하신다. 그 영광이란, 엠 4:13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목적, 사 58:12 세계를 향한 사명의 의미로 회복시키는 자의 목적을 의미한다.

8) 역상 29:10-13 창세 이후 발견된 모든 연구방법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롬 11:36 하나님께서 연구의 모든 시작과 과정의 근원과 마침이심을 의미한다.

하여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고 내면화한다. 이는 연구자의 내면화 된 실천적 지식이 개인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⁹⁾, 반성적 사고를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¹⁰⁾.

둘째, 기독교 세계관과 참여적 세계관의 반성적 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묵상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헌신된 삶으로 향하게 되며¹¹⁾ 계획과 실행 및 관찰과 반성의 순환적 과정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즉 연구자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지만 항상 그 과정과 결과가 완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¹²⁾.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겸손한 연구자의 태도는 삶으로 나타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게 자극과 동기가 될 수 있다. 모든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체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이다(고전 13:27).

넷째, 연구 과정 속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빌 2:12). 실행연구라는 틀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도구이며, 실행연구의 결과물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연구자는 반복되는 계획과 실행 및 관찰과 반성의 과정에 자신의 인격을 담게 되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루어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그 뜻 안에서 깊어지는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실행연구는 실행과정과 연구방법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일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적으로 조명된 연구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방법으로만 의식하면 자칫 실행과정의 흐름에 대해 간과하는 요소가 생겨나 자칫 이원론적인 연구방법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으로 조명한 실행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구방법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그리스도인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기독교 연구자 자체가 실행연구의 특징을 옷 입듯이 입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리로이 아임스, 2013).

따라서 기독교실행연구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 없다. 위의 정의와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실행-관찰-반성, 그리고 재계획의 사이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성령의 조명이 ‘완전하신 성령님의 조명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적 성령의 조명이란 ‘연구자가 성령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가? 그것으로 씨름하는 과정에 있는가?’라는 질문의 의미에 더욱 가깝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교사나 연구자는 점점 성령의 조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행연구의 질적 수준도 상당한 단계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생들의 훌륭한 결과물 보다 이러한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 인생들은 넘어지고 깨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들로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하시는 것,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사는 실수와 시행착오의 과정을 믿음으로

9) 마 13:33 천국에 대한 누룩 비유로 기독교사와 연구자의 선한 영향력을 설명한다.

10) 롬 12:1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현세대가 드릴 영적예배임을 생각할 때, 이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11) 엡 2:10 하나님 안에서 예비 된 계획들이 실행되는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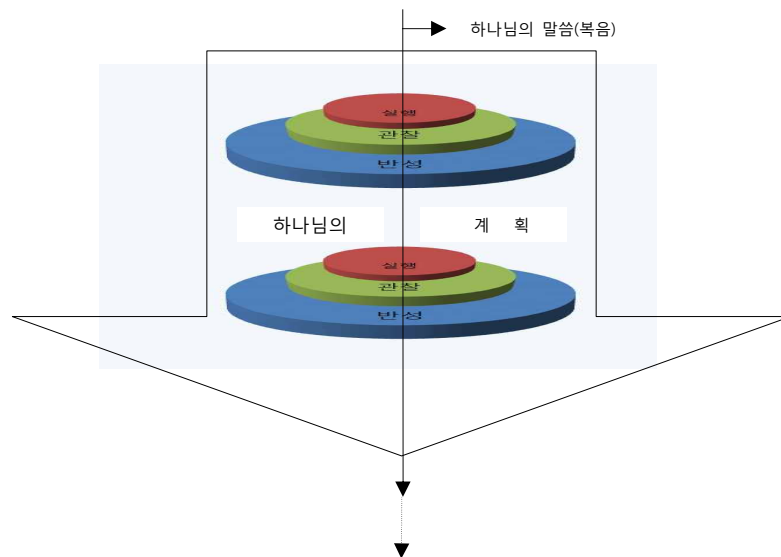
12) 빌 3:12-14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는 고백은 항상 연구자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배우는 자세에서 나온다.

한 걸음씩 내딛어 기독교실행연구를 설계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3. 기독교실행연구 설계

1) 기독교실행연구 모형

‘우리 반 모임’에 적용한 기독교실행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기독교실행연구 모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실행되는 과정의 중심축이다. 이는 실행과정과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초기에 교사의 ‘계획’의 기초이다. 즉 교사는 성령님의 대리 계획자이다. 이는 일반실행연구와 달리 계획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말한다. 계획은 실행시기와 과정, 사역의 범위 그리고 교사와 아이들의 삶의 맥락이 포괄되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교사 및 연구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요구된다.

셋째, ‘점진 화살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될 실행들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실행들을 의미한다.

넷째, ‘화살표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깊어짐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의 깊이, 연구자(교사) 및 연구 참여자(모임 구성원)와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 실행과정의 깊이, 연구의 깊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실행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계획-실행-관찰-반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단선적으로 나열 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그 이유는 첫째, 기독교실행연구 각 단계가 반성적 숙의(熟議)¹³⁾의 과정을 거치며, 계획보다 실행, 실행보다

13) swab은 “교육과정 분야가 죽어가고 있다. 현재의 원리와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분야의 작업을 계속할 수 없고, 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교육에 있어서 숙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기독교 교육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찰, 관찰보다 반성에서 더 넓고 깊은 반성적 사고와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실행연구는 실행의 현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계획을 하고 왔다가 그 모든 것을 멈추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실행 중에 반성적 사고과정에 의해 실행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실행과정 가운데 가장 큰 변수인 아이들의 특수성과 맥락 등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실행연구에서 교사 및 연구자에게는 계획한 것을 유능하게 실행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전략을 조절·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2)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본 연구의 ‘우리 반 모임’은 실행연구를 위해 계획된 모임이 아니며,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우리 반 모임’ 이야기를 기독교실행연구의 형식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자료는 모임의 목적에 따른 계획, 실행과 관찰 전반에 걸쳐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기록한 교사 개인의 저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널에는 참석인원 및 활동과 당일의 특이사항과 의미를 기술하고 아이들의 질문과 반응을 기록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나와 아이들의 삶의 맥락을 관찰했으며, 선행 연구물을 활용했다.

‘우리 반 모임’의 계획-실행-관찰-반성과 재계획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계획 : 하나님의 마음 즉, 말씀과 계획에 기초하여 단기간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기보다 영적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마음으로 모임을 계획한다.

실행과 관찰 : 각 모임의 특성과 구성원을 이해하고, 활동을 실행하며, 그 안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반응과 태도를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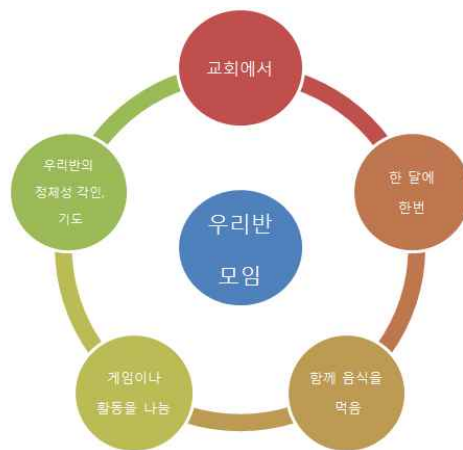
반성 : 각 모임의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다음 모임 계획 시 적절히 반영한다.

Ⅲ. ‘우리 반 모임’의 실행과정

‘우리 반 모임’ 실행의 배경이 차려진 밥상에 대한 이야기라면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실행은 그 밥상에 손가락을 얹어놓은 이야기이다.

2012년 1월 하나님께서는 뭔가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은 주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태였다. 나는 교회에서 정해진 공과시간에 맞추어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면 내 역할은 그만이었다. 이러한 나의 태도에 아이들은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사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나는 피자라도 사주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근처의 피자 가게에서 첫 모임을 갖았다. 그 동안 교회 학교에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던 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모임을 시작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을 펼치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께로의 초대였다! 3년 가까이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교사의 초청에 9명의 아이들이 참여한 것이다. 이 날, 나는 하나님께도 아이들에게도 순전히 감사한 마음뿐이

었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교회 공동체 내 모임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이에 나는 매달 ‘장’을 펼쳐주어 예배 이 외에 우리 반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관계전도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구상했다. 즉, 세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교회에 초대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모임의 초기에는 교사인 내가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점점 실제적인 섬김과 세움의 역할을 기존 세 명의 아이들이 담당하면서 우리 반 전체가 조화롭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우리 반 모임’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정했다[그림 2].



[그림 2] ‘우리 반 모임’의 원칙

원칙 1 : 교회에서 모임 갖기

이는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공간적인 친숙함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다(히 10:25).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 반 모임’에 참여하는 동기를 분명하게 인식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원칙 2 :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기

요즘 아이들은 꾸준한 것도 없고 일관적인 것도 없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쉽게 약속을 깨거나 지키지 못 할 약속을 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는 세대라는 말이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은 현 시대의 아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과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교회의 좋은 영향력을 주며 관계형성과 안정감 등 기본적인 사회적 소속감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원칙 3 : 음식 먹기

내 물질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나의 마음을 주는 행동이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음식을 사주고 함께 먹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아이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비로소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원칙 4 : 의미있는 게임과 활동하기

이는 소속감과 관계형성을 돕는다.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어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색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미있는 게임과 활동을 하다보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자연스러운 웃음과 접촉이 유발되어 어느새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때로는 이 시간을 통해 삶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제공하는 활동은 바쁜 학교의 일상에서 갖지 못했던 여유와 생각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우리 반 모임’을 더욱 의미있게 하며 추후에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원칙 5 : 정체성 각인하기

나는 우리 반에 붙이시는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새로 온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택하셨다.’라는 정체성을 심어준다.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다(출 3:14). 이는 하나님의 존재(창조자)와 능력(전능하신 통치자)을 모두 설명하는 말이다. 아이들에게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교회에 처음 온 아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이 교회에 오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나를 부른 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것이다. 이 호기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¹⁴⁾. 그리고 나는 ‘너는 우리 반’이라는 정체성도 함께 심어준다. 이는 꾸준히 출석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새로 온 아이가 언제든지 ‘우리 반 모임’이나 교회의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으로 ‘우리 반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목적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그림 3].

14) 고전 (3:7-9) 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정체성을 각인해 주어도 아이가 필연적으로 우리 반과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심고 물을 주는 교사의 역할과 수고가 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 할 때, 반의 규모를 키워보려는 막연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림 3] ‘우리 반 모임’의 목적과 방향

실행과정 이야기를 서술하기 전에 첫 번째 실행(2012. 2 - 2013. 2), 두 번째 실행(2013. 3- 2 013. 3), 세 번째 실행(2013. 6- 2013. 8)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행명	기 간	기 독 실 행 연 구 사 이 클				참여 인원	전체 인원
		계 획	실 행	관 찰	반 성 과 재 계 획		
첫 번째 실행 (실행특성에 따른 기간분류)	2012년 2월 - 2012년 5월	음식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음식을 나눈 후 정리를 위한 게임, 율놀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서로 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교회공간과 모임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부담감 없이 모임에 참여하고, 친구들을 데리고 왔다.	첫 실행이니 만큼 최소한의 것을 계획하여 역동을 위한 여백을 마련하고자 한 의도가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구경꾼 같은 생각을 품었기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자, 당황하며 반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알지 못했던 점도 있다. 재계획 : 이에 상황은 성령님께 맡기 되, 교사인 내가 구경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매달 교회에서 ‘우리 반 모임’이 있음을 전했지만, 예배에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선 내가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다.	2월 -9명 3월 -10명 4월 -9명 5월 -14명 참여	2월 12명 에서 5월 19명으로 증가
	2012년 6월 - 2012년 8월	친구와 교회에 관심을 갖는 활동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	교사의 편지와 친구들의 롤링페이퍼가 담긴 책을 생일을 맞이한 아이에게 선물한다. 음식을 나눈 후 간단한 게임으로 모임을 마친다.	아이들은 책 앞 장에 축복의 말, 장점, 칭찬하는 말 등을 적어 생일을 맞이한 친구에게 주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하면 서도 사뭇 진지한 모임이 이루어졌다.	넉 달간의 모임이 지나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렵 못하게나마 기대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를 경험시켜주고 싶었다. 특히 아이들의 생일에는 책에 편지를 써서 선물을 했다. 그 책 다음에 읽으면 좋은 책들을 선정해서 모임을 진행했다. 주는 아이들과 받는 아이들 모두 친구의 장점과 힘이 될 말들을 떠올리며 활동을 즐겼다. 재계획 :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회와 친구에 대한 친숙함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은 주제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6월 -8명 7월 -14명 8월 -19명 참여	6월 19명 에서 8월 20명으로 증가

	2012 년 9월 - 2013 년 2월	삶, 세계관, 감사, 예수님에 관한 활동 또는 대화를 나눈 후 음식을 나눈다.	찬양으로 모임의 문을 열고 책과 그림을 매개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아이들은 찬양도 좋아하고, 기도하자는 말에도 큰 거부감이 없었다. 재영이는 섬세한 관찰력과 활동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 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 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반 모임 안에서 활동을 할 때 학교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 작은 격려에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교 회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와는 뭔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하는 공동체에 대한 작은 경외감이 있 는 것 같았다. 재계획 : 아이들의 질문과 호기심 어 린 눈빛을 보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실 행과정을 준비했다.	9월 -6명 10월 -10명 11월 -9명 12월 -12명 1월 -8명 2월 -14명	9월 20명 에서 2013 년 2월 25명 으로 증가
두 번째 실행	2013 년 3월 - 2013 년 5월	기존의 '우리 반 모임'과 병행하여복 음제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계획을 3월 첫 주 모임의 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3월 첫째 주 모임 :말씀선포와 모임서약 3월 둘째 주 모임 :실행 못 함. 4월 모임: 복음을 나눔 5월 모임: 삼겹살파티	복음선포와 청 소년기의 사고 특성, 총체적인 모임 분위기의 변화로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 들의 숫자가 대 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4월 모 임에 참여한 세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 였음을 표현하 였다.	두 번째 실행은 첫 번째 실행에서 세 번째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복음선포와 청소년기의 사고특성, 총체적인 모임 분위기의 변화로 인하여 모 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는 줄었지만 세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우리 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 는 발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재계획 : 나는 모임이 나아가는 방향 안에서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모임을 해나가야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3월 -11명 4월 -4명 5월 -16명	25명 참여
세 번째 실행	2013 년 6월 -2013 년 8월	-일대일제 자양육성경 공부- 교재를 활용하여 첫 번째 주제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 관한 복음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찬양, 퀴즈, 질문등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참여시켜 복음을 제시하였고 모임의 주제에 따라 도입/전개/ 마무리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소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참 여도 및 관심도를 보여 주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립에 관심을 보이며 죄없는 예수님의 죽음에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모임의 간격이 한 달 가량 되다보니, 지난 모임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연결 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자신 안에서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만큼 강한 동기는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아이들의 태도 와 질문하는 아이를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재계획 : 준비한 말씀을 모두 전하지 못 할 때도 있고, 말씀 속에서 꼬리에 꼬 리를 물고 질문들이 오가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뭔가 해야만 하고, 전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보다, 자유 롭게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끌고 계심을 알 수 있었고, 다 전하지 못한 아쉬움보다, 모임 안에서 이루시 는 일들을 보는 기쁨이 더 컸다. 다양한 활동으로 계속 모임을 해 나가 야겠다고 생각했다.	6월 -8명 7월 -10명 8월 -6명	25명

〈표 1〉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실행과정

1. 첫 번째 실행 - 장을 펼쳐라!

1) 첫 번째 실행과의 대면

나는 우리 반 모임이 있는 전날 아이들과 개별적인 통화를 했다. 아이들과 직접 통화하

는 것은 아이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아버지 생신이라서 반 모임이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처한 맥락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러한 개별적인 통화를 아이는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아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모임 당일에 먹는 음식은 비싸지 않으면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다. 간혹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말해주면 그것으로 정하기도 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식탁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서로 몰랐던 모습과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상황을 제공하기도 했다. 2012년 3월의 실행에서 현우라는 아이는 우리 반 아이들이 라면을 다 먹은 후에 내가 혼자 급하게 먹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작은 접시에 김치를 떠왔다. 그 아이의 평소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작은 감동으로 인해서 행복했다.

주요활동은 계획한 것을 하기도 하고 즉석에서 활동과 방법을 함께 정해서 진행하기도 했다. 실행의 전반기에는 주로 소속감을 주는 활동으로 놀이에서 이기는 팀 혹은 지는 팀이 설거지를 직접 하거나,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밥 먹으러 교회에 오는 아이들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영원한 소망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아이들이 ‘우리 반 모임’의 나아가는 방향을 감지 할 수 있도록 실행의 중·후반기에는 대화, 생일, 축복, 삶, 세계관과 감사 등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 첫 번째 실행에 대한 반성

‘우리 반 모임’의 겉모습은 밥 먹는 모임이지만, 음식이나, 출석인원 등이 반성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실행에 대한 반성은 본질적인 물음과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전체적으로, 모임 초기에 정한 원칙에 따라 꾸준한 ‘우리 반 모임’을 진행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 솔직히 모임을 건너뛰고 싶은 달도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의 모임을 갖는 것이 교사로써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하여 장을 펼치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대로 세 명의 아이들이 ‘우리 반 모임’을 관계전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세 명의 아이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영혼을 걱정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 성호는 친구들에게 주일 예배 초청을 잘하고 있었다. 나는 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친구들의 영혼에 대해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고 반성했다.

두 번째로, ‘우리 반 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교회 다니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묻는다면 이 아이는 ‘네, 한 번 가봤어요...’, ‘다니지는 않는데, S교회 가봤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문이 된다. 아이들은 교회에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교회에 왔던 아이는 선수적인 은혜 속에서 오게 된 아이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아직은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실행을 통해서 새 생명의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우리 반 모임’의 출석인원과 전체인원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인원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서 출석인원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반 모임’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특이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들은 지나가다 밥 먹으러 오기도 했고, 친구 따라 한 번 와보는 등 부담 없이 ‘우리 반 모임’에 왔다. 게다가 매달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모임에 한 번 빠지게 되더라도 다음 모임에 별 미안함 없이 오며 다른 친구도 자연스럽게 데리고 왔다. 2-3달에 한 번 씩 얼굴을 비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교회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이 교회가 전에 왔던 그 교회’인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의 이러한 반응과 결과는 ‘우리 반 모임’의 첫 번째 실행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친구를 따라서 왔고, 그 시간에는 별로 할 일도 없고, 밥을 사준다고 하니까 왔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다. 말하자면, ‘우리 반 모임’에 온 아이들은 본인이 이 교회의 모임에 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불신자가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눅 15:7).

세 번째로, 매달 한 번씩 있는 모임은 내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아이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즉, 평생 믿어야 할 예수님과 평생 알아도 알지 못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며 마음을 열 수 있는 모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실행의 성격상 아직 아이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총체적인 맥락 가운데 기독교가 인격적이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아이들이 늘 올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반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지만 복음을 듣고 싶은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반 모임의 형태로 나아가야 함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단연 교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행의 일 년 여 시간이 흐른 2013년 2월, 교회의 공간적인 상황과 맞물려 대화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맥락으로 흘러갔다. 이 때 나는 아이들이 무언가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두 번째 실행을 계획했다.

2. 두 번째 실행 (2013. 3 - 2013. 5) - 우리는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우리 반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간사님과 함께 3월 첫째 주 모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할 것 인가에 대해 기도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나타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실행계획을 다르게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모임은 그 동안의 어떤 모임보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나는 교회에 처음 오는 아이들을 위한 모임과 복음을 더 듣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으로 기존의 ‘우리 반 모임’과 매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병행하는 틀을 구상했다. 이에 나는 3월 모임에 매주 모임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는 순서를 계획하여 서약한 아이가 다섯 명 이상일 경우 매주 모임을 갖고, 만약 다섯 명 미만일 경우 개별면담을 통하여 일대일제자양육과정¹⁵⁾을 진행하고

15) S교회는 제자양육을 할 때 두란노에서 출판하는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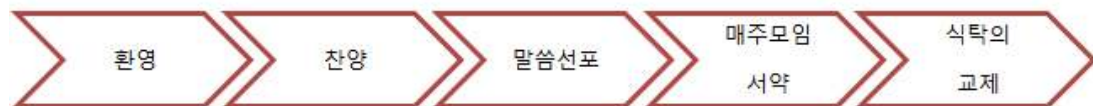
자 했다. 두 번째 실행은 첫 번째 실행의 원칙 1,2,3의 모습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매 달 정기적으로 복음에 대해 나눈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는 아이들에게 낯설지는 않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 두 번째 실행과의 ‘대면’ - 다양한 시도와 기다림

두 번째 실행은 세 달에 걸쳐 네 번의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은 매 번의 모임으로 그 성격과 흐름을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간과 사고추이에 따라 실행과정을 설명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특별히 두 번째 실행의 과정은 첫 번째 실행처럼 명쾌하게 설명되는 과정이 아니었다. 단 두 달이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진 관찰과 반성은 첫 번째 실행보다 깊고 복잡했다. 지금 돌아보니 복음이 선포되면서 영적전쟁이 치열해진 덕분이었다. 나는 두 번째 실행과정 속에서 진짜 전쟁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음을 감사하며 즐기는 마음과 내 믿음을 잃음과 연약함을 타는 마음이 교차되어 더 깊은 반성적 사고로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1) 3월 첫째 주 모임

3월 첫째 주 모임의 실행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두 번째 실행 ‘3월 첫째 주 모임’의 과정

① 환영

오후 5시 30분, 모임은 약간 늦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6시 즈음 11명의 아이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처음으로 교회에 온 아이도 있었다. 나는 P.P.T 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화면 가까이에 모여 앉도록 하였으며 아이들은 순순히 이러한 진행에 응했다.

② 찬양

나는 아이들이 자리를 잡자마자 ‘찬양하자’ 라는 말로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이 영적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진행했다. 11명의 아이들은 모두 처음 들어보는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께 있도

양육자는 교제를 마치는데 의의를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육대상자의 삶의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과정을 진행한다. 따라서 양육대상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 본인은 본 교회의 사모님께 양육을 받았고, 양육자로서 이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만 10주 가까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할 때, 양육대상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충만 등의 주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가시기 때문이다.



[그림 7] 말씀선포의 맥락과 흐름

④ 매주 모임 서약과 음식 나누기

말씀선포 후에 곧바로 매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서약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이 때 아이들이 서로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다섯을 셀 동안 자신이 위치한 지점이 옆 사람과 최대거리가 되는 지점으로 가서 앉는 간단한 게임을 했다. 그 후에 필기구와 서약서를 나누어주고 표기할 수 있도록 약 5분의 시간을 주었다.

이 날 음식을 나눌 때, 자신의 비밀스런 고민을 털어놓은 아이도 있었다. 또한 모임의 분위기가 전에 비해서 더욱 부드럽고 따뜻했다. 복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거친 말투와 행동들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것 같았다. 아이들을 보낸 후 나는 큰 기대없이 아이들이 제출한 서약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11명의 아이들 전원이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2) 3월 둘째 주 모임

나는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반응에 긴장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3월 둘째 주 모임을 준비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꼭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참여숫자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모임을 한 시간만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말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시간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1명의 아이들의 서명이 담긴 서약서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간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을 기다렸다. 모임 시간 5시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수가! 계속 예배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눈과 마음은 아이들이 들어오는 현관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직접 서명하고 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다. 나는 아이들이 직접 서명한 종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렸다. 불현듯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직접 서명하였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나에게 안겨주셨다. 아이들을 사랑하되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었다.

아이들이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서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약속'이니 이렇게 이름을 쓴 아이들을 반드시 만나주실 거라는 확신을 공급하신 것이다. 맞다! 지난 모임 이후 잠깐이지만 나는 내가 모임을 이끌려고 계획했었다. 실제로 나는 아이들의 영혼에 대한 기도보다 이 모임에 대한 준비를 더 열심히 했다. 만약 오늘 아이들이 지난 주 처럼 와서 앉아 있었다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열정으로 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깊어졌다. 그저 나는 그 동안 하던 대로 우리 반 모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

서 다시 우리 반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5시 50분 즈음 늦어서 미안했는지 세 명(성호, 준수, 주원)이 쭉뚝거리며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정한 원칙 1시간 안에서 10분이 남은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나니 아이들의 방문이 갑작스럽게 느껴졌다. 할 일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 중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주원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함께 기도하며 3월 둘째 주 모임을 마쳤다.

(3) 4월 ‘우리 반 모임’

4월 모임을 준비하면서 갖게 된 중심생각은 ‘우리 반 모임’에 오면 밥을 먹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했다는 것이다. 내가 반 모임의 방향과 성격을 바꾸지 않는 한 복음에 대해 듣고 싶은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오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일까? 오히려 이전의 모임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모임에 임할 수 있었다. 먼저 교회에 온 성호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에 세 명(재균, 준호, 재영)의 아이들이 왔다. 그런데 이 세 명은 3월 첫째 주 모임 때 맨 앞에 앉아 복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내 마음에 각인된 아이들이었다. 과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셨다. 놀라운 것은 그 중 두 명은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밥 먹고 가라고 해서 ‘우리 반 모임’에 처음으로 오게 된 아이들이고, 이 날이 교회에 세 번째 방문 한 날 인 것이다! 교회에 와서 귀가 닳도록 복음을 들었던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일까? 어찌 되었든 아이들의 참여숫자와 모임의 크기보다 재미있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있다는 사실이 기뻐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호는 재균이가 함께 일요일에 교회가자고 했다고 나에게 고자질하듯 일러주었다. 두 명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성공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이 이미 아이들 마음속에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성호는 기타로 예배를 인도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다. 찬양 가사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크게 따라 부르는 모습이 순수하고 귀여웠다. 다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호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매우 귀여워하시며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4) 5월 ‘우리 반 모임’

5월 ‘우리 반 모임’은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는 날과 맞물려있어 무언가 계획하고 나누는 것을 시도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삼겹살을 사주며 시험기간의 노력과 수고를 격려하고 싶었다. 태균이가 두 명의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16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하며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던 재균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면 일대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에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한 달 동안 고민해보고 선택하도록 격려했다. 한 달 후에 재균이는 친구들과 함께 모임에 오는 것이 익숙하고, 일대일로 배우는 방식이 아직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재균이와 내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했다. 그러나 재균이가 예배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반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접하는 복음으로는 재균이 혼자서 신앙에 대한 동기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두 번째 실행에 대한 반성

두 번째 실행은 첫 번째 실행에서 세 번째 실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실행에 첫 번째 실행의 모습이 담겨 있지만, 본격적인 실행이라고 하기에는 세 번째 실행으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3월 첫째 주 11명에서 3월 둘째 주 3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함께 모임을 도왔던 간사님은 3월 첫째 주 모임 당일 아이들이 순한 양과 같았다고 표현했다. 즉 거친 고등학생의 모습과는 달리 아이들이 모든 실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진지하게 반응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에 나와 간사님은 3월 둘째 주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당황하였다. 이러한 두 번째 실행의 현상은 3월 첫째 주 모임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일어나는 인간의 두 가지 반응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반응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베드로 사도와 스테반 집사에 의해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한 무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회개했고¹⁶⁾, 다른 무리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이를 갈고 귀를 막았다¹⁷⁾. 즉 복음은 복음의 능력과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미련한 것이다(고전 1:18). 복음이 논리와 추론을 중시하는 청소년기의 사고수준으로 볼 때,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데다가 주의 깊게 듣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타났던 교사의 모습과는 다른 이미지 등이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4월 모임에 참석한 세 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무리 가운데 극소수뿐 이었던 것처럼,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이들이 모임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모임의 가치와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었다는 점에서 나를 격려해주었다.

둘째, 두 번째 실행의 3, 4, 5월 모임은 불균형과 혼돈의 시기면서 동시에 우리 반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의 역할을 했다. 어떠한 면에서 반 모임은 계획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나는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보니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을 줄 아는 교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마음을 보게 된 시간이었다.

셋째, 책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특성을 가지고 따라 하기만 했다면 배우지 못했을 통찰과 해보지 못했을 고민을 아이들과 실제로 부딪히며 하게 되어 감사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반 현중이에게 예수님 믿기 전이 행복한지, 예수님 믿은 후가 행복한지 물었다. 현중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도 몰랐다’는 대답을 했다. 요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어른보다 우세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오히려 실제 연령보다 어리고 여리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고 하며 말 걸기조차 꺼려한다. 이는 모세시대 사단의 전략처럼¹⁸⁾ 다음세대의 부흥을 막는 현대판 사단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시대의 아이들은 캄캄한 어둠에 있으며, 참 사랑과 행복을 갈망하고 있다. 빛은

16) 행 2:37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며, 겸손한 태도로 묻는다.

17) 행 7:54-55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는 행동에까지 이른다.

18) 출 1:16 애굽 왕이 히브리 남아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둠을 밝히지만, 어둠은 더욱 극명하게 빛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즉 아이들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어른들보다 자신의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둠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3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임이 나아가는 목적과 방향 안에서 복음제시의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고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모임을 해나가야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다.

3. 세 번째 실행(2013. 6 - 8) - '성령의 파도'타기

1) 세 번째 실행과의 대면 -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

세 번째 실행은 2013년 6월, 7월, 8월 '우리 반 모임' 실행의 각 면모로 그 의미를 관찰하고 반성했다.

교사의 부르심과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에 이끌려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실행과 과도기와 같았던 두 번째 실행에 이어 맞이하게 된 세 번째 실행은 시행착오와 좌절, 갈등, 그리고 더 큰 감사 속에 시작됐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법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고 했다. 즉, 나는 '우리 반 모임'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 번째 실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의미있게 접했던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에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교재를 활용하여, 복음의 제시과정을 구성하기로 했다.

2) 세 번째 실행에 대한 반성

시행착오와 갈등과 반성가운데 이루어진 세 번째 실행은 성장통을 겪은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실행의 특성은 첫째, 교재를 안정적인 도구로 활용하여 융통성 있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복음 제시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히 5:14). 이에 어미새가 잘 씹어 소화한 것을 아기 새에게 먹이듯이, 내가 잘 소화했던 과정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교사인 나를 먼저 자유롭게 해주며, 확신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힘이 된다. 또한 우리 반 모임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나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 앞으로도 야외에서 운동을 함께하거나 산행을 함께하는 모임의 실행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교사가 복음을 제시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함을 알면서도 모임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세 번째 실행은 복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도 불편한 모임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꾸준히 참여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복음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복음을 들으러 오지 않는가!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소수의 아이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많은 무리의 영향력을 압도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며,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 해 오셨다. 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양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개개인의 질적·내적부흥이 먼저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늘 아이들의 숫자가 마음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반 모임’의 실행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아이들의 참여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수를 지양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우리 반 모임’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는 3월 첫 모임 이 후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우리 반 모임’을 알렸던 내 동기를 반성했다. 나는 큰 고민 없이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모임을 공지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사랑없음과 연락하기를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매 달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다보니 25명 통화에 거의 두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이들 모두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무료문자를 사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모임을 알릴 수 있었다. 개별적인 관심과 마음을 전달하는데 직접 통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카카오톡이라는 그룹채팅의 편리성으로 모임을 알리는 나의 선택을 합리화하였음을 반성하며, 개별적인 전화연락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욱 존중감과 친밀감을 갖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IV. 나오며 - Already but not yet!

1. 이미 온 것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들

S교회의 고등부 교사인 나는 기독실행연구의 방법으로 ‘우리 반 모임’ 실행과정 이야기 즉 ‘우리 반 모임’의 실행배경부터 세 번째 실행까지 이루어진 현장의 열매와 의미에 대해 서술했다. 교사로서 각 모임 때 마다 분명히 최선을 다했지만 좀 더 세심한 안목으로 모임을 계획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갖는다. 또한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단련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각 실행의 에피소드와 섬세하고 미묘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실행들과 반드시 올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들에 관해 서술하는 일이다. 작은 겨자씨가 천국의 모습에 비유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반의 시작은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막 4:30-32). 겨자씨를 심어 놓고 파보고, 파보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혹시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우리 반 모임’ 운영에 대하여 누구도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편하게 교사의 역할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그래서 홀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도 했지만, 교사의 소명을 찾고 고민하는데 더욱 유익한 점을 제공했던 것 같다.

우리 반 담임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또 그렇기에 나 같은 질그릇에 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힘이 들 때마다 작은 그릇에 김치를 담아다 주는 아이의 손길, 덩치에 맞지 않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망울,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의 어른스러운 말 한마디로 교사인 나를 격려하시고 우리 반을 이끌어 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사명이란 ‘하지 않으면 내가 더욱 불편해서 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해야 편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로부터 호응이 없어도 나는

교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불편한 모임’에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내가 교사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 더욱 감사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과 땅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또한 나를 만나는 아이들도 동일한 꿈, 그 이상의 꿈을 꾸기를 소망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에(빌 1:6)!

2. 내가 엮은 기독교실행연구, 내가 엮을 기독교실행연구

‘우리 반 모임’의 실행과정과 반성적 사고를 정리한 이 글이 실행연구의 절차를 잘 따랐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실행연구방법이 ‘우리 반 모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유익했다. 그러나 실천적 지식과 기독교 성품적 요소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는 연구법이라 해도,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연구방법은 목적과 평가의 기준이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교사와 사역자의 역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본으로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재계획의 실행, 믿음과 용기 가운데 길러질 수 있다. 그러나 방법과 동기 면에서 ‘어떻게’ 다음세대에게 줄 것 인가. ‘어떻게’ 내가 소화할 것인가, ‘왜’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행에 대한 방법과 동기를 다루는 연구가 미비하다.

이러한 함의에 따라 개발되는 기독교실행연구체계는 교회학교 현장의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독교실행연구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믿음은 개인과 교회를 무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둘째, 기독교실행연구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교회학교 내의 연구적 풍토가 개인과 교회의 영적 성숙과 부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러한 방법과 흐름이 개인과 교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탐색해 보는 과정은 교회와 교회학교의 운영과 방향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과 갱신에 반성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된 연구법의 교회현장 적용과 교회학교 내 연구적 풍토가 교사와 사역자, 교회학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교회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것이다. 이에 기독교실행연구방법을 통해 반을 운영하고자 자원하는 교사들이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스스로, 또는 함께 분석하면서 생명력 있는 운동을 이어간다면, 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3. 세상에 외치다!

S교회의 ‘우리 반 모임’의 실행과정 이야기를 통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반 모임’은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다.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치는 높지만 복음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학교의 공과시간이 아닌 별도의 ‘밥 먹는 모임’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 때 현대 교회는 이러한 시도

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알고 복음사역의 본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반 모임’으로 구원에 대한 잠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늘어났다. ‘우리 반 모임’은 아이들 자신도 모르는 영원에 대한 갈망을 채움 받을 수 있으며 이 모임은 교회 공동체에 언제라도 소속될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모임에 왔던 아이들에게는 늘 선택의 길이 열려있다. 이는 교회에 왔다가 다시 발을 들여놓기 어려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현대 청소년 복음사역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이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수용적 태도와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 반 모임’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가 허락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교사인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섬김을 연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나온 실행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믿는다. 특히 친구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모임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우정과 나눔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반 모임’의 시작과 과정이 계속적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면, 이를 경험한 우리 반 아이들은 이러한 방법의 태도를 가지고 교회학교의 교사로 섬기며 자신들의 세대를 새롭게 하고, 자신들의 자녀 세대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우리 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으며,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균형있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 믿는다.

본 연구의 기독교실행연구방법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에 중점을 두고, 방법과 이유에 대해 다룸과 동시에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계와 학계에 긍정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다. 바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이다! 교회는 본질상 진리를 추구하지만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교회가 처한 환경과 맥락, 그 규모 역시 교회의 수만큼 천차만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면에서 다양한 교회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질적 수준은 교사와 사역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복음의 가치를 소유한 교사와 사역자는 현 시대의 영적 아버지와 어미로 세워져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와 사역자에게는 반 운영과 전체 흐름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통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사역을 위해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명성있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교사와 사역자가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고에서 간략하게 다룬 실행연구의 기독교적 조명에 대한 연구와 기독교실행연구모형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에 적합한 현장성 연구라는 점에서 어렵지 않게 교회학교 교사와 사역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므로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세미나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회의 현장에서 적용한 실제적인 실행사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실행연구체계의 이론적 배경과 그 이름에 더욱 충실한 실행연구와 기독교 학문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소원을 가져보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김미경 (2011). 기독교 대학생의 기독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삶의 접근요인과 과정탐색, *교육과정연구*, 42(2), 211-234.
- 김남수 (2003).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6(2), 1-32.
- 김영천 외 (2006). *After Tyler: 교육과정 이론화 1970년-2000년*. 문음사.
- 리로이 아임스 (2013).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3판, 네비게이토 출판사.
- 박현신 (2010). *중고등부를 부흥시키는 7가지 혁명*. 베다니 출판사.
- 오스왈드 챔버스(2009). *주님은 나의 최고봉*. 토기장이.
- 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 방법*. 학지사.
- 최태진 (2012). *포스트모던 시대 청소년을 위한 설교와 공동체 사역*.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effrey E. Mills (2005). 강성우 외 역.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 우리교육.
- NIV 한영성경, 개역개정.
- Kemmis, S. and McTaggart, R. (2000).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Denzin, N. and Lincoln, Y.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567-605). Sage Publications.